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1.22~25)

1. 지소미아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CCTV 뉴스(央视新闻)는 11월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발표 이후, 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전하며 지소미아 연장이 불확실해 보인다고 보도[1)]

o 한국 정부는 안보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여 해결하자는 '투 트랙 전략'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고 발표

* 투 트랙 전략은 수출 제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있어서 양국이 조금씩 양보하고, 이후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

o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정책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나, 이는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중단을 결정하는 등 무역 분쟁 개선 희망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발표

o 매체는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는 합의했으나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보도
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11월 23일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한·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[2)]

o 강 장관은 지소미아,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협상 재개 등을 논의했으나 협상 재개 결과는 반드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철회일 것이라고 강조했음을 인용 보도

o 이에 일본 정부는1965년 한·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인용 보도

---

1) 「韩推迟终止韩日军情协定 安倍：韩方作出了"战略性判断"」, 『央视新闻』(2019. 11. 23)
2) 「僵局稍缓 日韩外长同意就举行首脑会谈开展协调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11. 24)

- 국제재선(国际在线)은 한·일 정부가 12월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을 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결정은 한·일 관계 악화를 일시적으로 억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[3)]

- 참고소식(参考消息)은 일본 매체가 한·일 양국이 합의한 시간보다 약 1시간 전에 지소미아 종료 기한 연장을 발표했다며, 이는 일본 정부가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 매체의 보도를 인용 보도[4)]

o 또한 전체적 상황에 대한 보도 없이 "한국 WTO 제소 철회, 협상 결정" 등과 같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인용 보도

- 신화망 객호단(新华网客户端)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통지 효력 정지가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여 양국 지도자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[5)]

o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는 미국의 불만과 보복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한국은 아직 일본 정부에 불만이 많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어렵다고 분석

o 일본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 宫家邦彦 연구원도 이번 연장 발표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양보한 것으로 보이며, 지소미아 종료는 한·미·일 3국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의미 한다고 평가

o 또한 그는 지소미아 종료 기한을 연장했으나 중·장기적 관점에서는 문제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며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

o 한편 국제위기그룹 김두연 선임연구위원은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이 모호하고, 한국이 이를 장기간 유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·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

---

3) 「推迟终止韩日军情协定后, 日韩外长首次举行会面」, 『国际在线』(2019. 11. 24)
4) 「围绕日韩军情协定磋商结果 韩国被日本"摆了一道"?」, 『参考消息』(2019. 11. 25)
5) 「推迟终止军情协定 韩对日立场为何转软」, 『新华网客户端』(2019. 11. 24)

- 팽배신문(澎湃新闻)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발표에 대해 한·일 양국이 그 배경에 대해 확연히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을 보도[6)]

o 22일 한국 정부는 언제라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본에 대한 종료 통지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, 양국은 빠른 시일 내 외교 채널을 통해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발표

o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수출 제한 조치 관련 국장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, 하지만 이는 지소미아 종료 연장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것을 강조

o 일본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가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한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

* 일본 자민당 佐藤正久 의원도 일본 정부가 양보했다는 것을 부정하며 종료 연기 결정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 라고 발언(日本产经新闻)

* 아베 총리 역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·일, 한·미·일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 정부의 (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) 결정 역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발언

- 앙광군사(央广军事)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한 중국 군사 전문가 杜文龙의 의견을 인용 보도[7)]

o 군사 전문가 杜文龙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배경에 대해 미국의 압력과 중요 설비 수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한국 정부는 종료 연기 조건으로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내걸며 한·일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평가

o 조건부 연장은 임시방편일 뿐, 한·일 간 과거사 문제, 무역 분쟁 등에서의 의견 대립은 여전하다며,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체면을 세워줄 뿐 양국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 분석

---

6) 「协定失效前六小时韩紧急续期, 是因日本让步还是迫于美方压力」, 『澎湃新闻』(2019. 11. 23)
7) 「专家点评丨韩日军情协定缘何会“起死回生”?」, 『央广军事』(2019. 11. 24)

o 또한 지소미아 종료 잠정 중단에도 불안정한 한·일 관계는 한·미·일 3국 안보 기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

- 환구망(环球网)은 한·일 협상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재개되나,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 매체를 인용 보도[8)]

o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의 수출 제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위한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에 있으며, 빠르면 이번 주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

o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,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에 있어 한·일 정부의 입장차가 큰 만큼 이번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인용 보도

8) 「韩日最快本周启动经贸磋商 韩媒预测不会顺利」, 『环球网』(2019. 11. 25)